

코로나도 잊게 한 '추캉스'...남도 주요 관광지 '복적복적'

목포 해상케이블카·신안 천사대교 등...식당·카페서 모임 코로나 우울감 해소...마스크 착용·발열 체크 등 수칙 준수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추석 명절을 포함한 닷새간의 황금연휴 기간 남도(南道) 주요 관광지에는 적잖은 관광객이 찾아들며 활기를 띠었다.

정부의 고향길 방문 등 이동 자제 권고가 내려졌지만 시·도민과 방문객들은 모처럼 방문 밖을 나서 전남의 바다, 섬, 해상케이블카, 박물관 등을 다니며 그간 쌓였던 '코로나 우울감'을 털어내려는 모습이 었다. 관광객들이 하나같이 마스크를 쓰고, 시설 입장 전 방역책을 작성하는 등 대체로 방역수칙이 잘 지켜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광주에서 자영업에 종사하는 이모(40)씨는 추석 이틀날인 지난 2일 가족 동반 나들이에 나섰다. 목적지는 해남군 황산면에 자리 잡은 해남공룡박물관. 1시간 30분을 달려 도착한 박물관에는 예상과 달리 적잖은 이용객이 관람하는 모습이 었다. 박물관과 가까운 제1주차장은 차량이 꽉 들어찼고 다소 떨어진 제2주차장에 겨우 주차할 수 있었다.

이 씨는 "올 초부터 1년 가까이 코로나19 때문에 집에만 있다시피 한 아이들에게 모처럼 바람을 쐬어주려고 낯익은 공원을

품은 공룡박물관을 찾았다"며 "연휴 기간 입장 요금을 받지 않아서 그런지 예상외로 방문객이 많았지만, 시설 입장 전 발열체크, 방역책 작성 등 방역 수칙이 잘 이뤄지는 것 같아 마음이 놓였다"고 말했다.

1004 섬 신안으로 가는 관문 '천사대교'는 연휴 내내 북새통을 이뤘다. 신안군 집계결과 지난달 30일부터 4일 오후 3시 현재까지 천사대교 통행 차량은 모두 6만 500여대였다. 연휴 전 일 평균 통행 차량 7000대와 비교하면 갑절 가량 증가한 셈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연휴기간 차례와 성묘를 마치고 신안 이곳저곳을 관광하려고 차를 몰고 많이 찾아 주신 것 같다"며 "천사대교 진입 차량으로 정체가 빚어지자 차를 돌려 나가는 분들도 적잖았다"고 전했다.

동부권 관광도시 여수도 이번 연휴 기간 들쭉였다. 옹동도, 해상케이블카 등 이름난 관광지는 관광객이 몰릴듯 들이닥쳤고 인근 카페와 식당기도 사람들로 넘실댔다.

목포도 마찬가지였다. 해상케이블카를 타려면 1시간 줄을 서 기다리는 것은 예사였고 주차장은 연휴 내내 만석을 이뤘다.



추석 이틀날인 지난 2일 관광객들이 목포 해상케이블카를 타려고 줄서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제주행 여객선이 오가는 목포 국제여객터미널도 시종 북적였다.

정부의 고향 방문 자제 권고에 호텔, 콘도 등 지역 휴양시설은 반짝 특수를 누렸다. 진도썰비치의 경우 추석 연휴 객실 이용률이 95%에 달했고 여수 디오션 객실 이용률도 70%를 넘어섰다.

광주지역 식당가, 카페에도 활기가 돌았다. 도심 카페는 친구, 가족들과 삼삼오오

모여 답소를 나누기 위해 찾아온 손님들로 빈자리를 찾기가 어려웠다. 일부 손님을 제외하고는 차를 마실 때를 제외하고 시종 마스크를 착용하는 모습이 었다. 맞접으로 이틀난 식당뿐 아니라 웬만한 식당은 모처럼 만난 가족, 친지, 친구들과 음식과 술잔을 나누려는 이들로 북적였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신안·목포·이성산·박영길 기자 sslee@

알립니다

철학자 최진석과 책 읽고 건너가기

2020년 10월

헤르만 헤세 '데미안'

광주일보사와 최진석(사단법인 새말 새물길 이사장)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가 함께하는 '철학자 최진석과 책 읽고 건너가기-한 달에 한 권 책 읽기' 10월의 책으로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 선정됐습니다. <관련 기사 16면>

출간 101년 동안 전 세계 수많은 젊은이들의 사랑을 받아온 '데미안'은 주인공 에밀 싱클레어가 자기 내면에 귀 기울일 것을 가르쳐주는 데미안을 만나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성장소설의 고전'입니다.

"너는 누구냐?"
고단한 여정에 스스로 내리는 축복의 종소리

인간은 자기가 온전히 자기가 되는 순간 신성을 경험한다. 자기 안에서 자기가 신이 됨으로서 그는 자신만의 신화를 일구는 주인공으로 이 세계에 등장한다. "내 속에서 솟아 나오려는 것, 바로 그것을 나는 살아보려 했다"는 첫 구절은 나는 나로 살아야 존재의 완성을 경험한다는 확신을 알려주는 웅변이다. 인간은 보통 인간으로 완성되는 이 길에서 우왕좌왕하고 좌절한다. "왜 그것이 그토록 어려웠을까?" 방향하는 길 위에서 "나는 누구냐?"라는 환청에 시달린다면, 오히려 괴로워 말라. 이는 병이 아니다. 신이 되어가는 고단한 여정에 내가 스스로 내리는 축복의 성스러운 종소리다.

先州日報社

안방 뒤흔든 나훈아 "이 나라는 여러분이 지켰다"

추석 TV콘서트 시청률 29% "지친 국민 위로" "현 정부 비판" 여야 '아전인수' 격 해석

지난달 30일 KBS 2TV가 방송한 '2020 한가위 대기획 여계인 나훈아' 비대면 콘서트가 높은 시청률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을 위로했다.

지난 1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방송 시청률은 29.0%로 집계됐다. KBS 2TV 주말드라마 정도를 제외하면 좀처럼 보기 어려운 수치다. 나훈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을 위해 부모수로 이번 공연에 출연했다.

하지만, 높은 시청률 속에 막을 내린 '트로트 황제' 나훈아의 공연은 추석 연휴기간 내내 정치권을 들쭉거리게 만들었다. 가수 나훈아가 공연 중 한 발언을 놓고 여야가 '아전인수' 격 해석을 내놓으면서 격돌했기 때문이다.

나훈아는 공연에서 "이 나라는 바로 오

늘 여러분이 지켰다. 왕이나 대통령이 국민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이 힘이 있으면 '위정자'들이 생길 수가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야당은 "속 시원하게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고 한 반면 여권에서는 "코로나로 지친 국민을 위로한 것"이라며 "지나친 확대 해석 말라"고 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페이스북 글에서 "나훈아가 있고 있었던 국민의 자존심을 일깨웠다"며 "언론이나 권력자는 주인인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 공연의 키워드"라고 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도 "오죽 답답했으면 국민 앞에서 저 말을 했을까"라고 했다. 야권은 "국민이 힘이 있으면 위정자들이 생길 수 없다"는 나훈아의 말을 두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야권 역할을 강조한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반면 여권은 "정치적으로 '오버'해서 해석하지 말라"고 했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은 "(정치권에서) 나훈아씨의 말이 문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달 30일 KBS 2TV에서 방송한 '2020 한가위 대기획 대한민국 나훈아'에서 나훈아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민 정권에 대한 비판 민심인 것처럼 난리"라고 했다. 정청래 의원은 "오죽하지 말라. 나훈아는 민주주의를 노래하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지사는

페이스북에서 "그는 여전히 저의 우상"이라며 "(코로나로 인해) 외로운 시간에 가항 나훈아님의 깊고 묵직한 노래가 큰 힘이 되었다"고 했다.

/최권일 기자 cki@연합뉴스

트럼프, 입원 중 트위터 출연... "곧 복귀"

코로나19 확진... "향후 며칠이 진정한 시험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코로나19로 전날 입원 당시 몸이 안 좋았지만, 지금은 나아졌다면서 향후 며칠간이 진정한 시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병원행 이틀째인 이날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린 4분 분량의 동영상에서 "여기 왔을 때 몸이 안 좋다고 느꼈으나 좋아지기 시작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향후 며칠간 진정한 시험이 될 것으로 본다"면서 "앞으로 며칠 동안 어떻게 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같은 날 워터 리드 군 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다.

이날 영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넥타이를 하지 않은 정장 차림으로 탁자에 두 팔을 올린 채 앉아 있는 모습으로 등장했으며, 지친 기색을 보였다고 로이터 통신은 평가했다.

오는 11월 3일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

고 있는 그는 "나는 곧 돌아갈 것으로 본다"면서 "캠페인이 시작됐던 방식으로 내가 완수하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코로나 확산 와중에 대규모 유세에 나선 그는 "나는 선택지가 없었다"면서 "나는 전면에 서야 했으며, 리더로서 문제들과 맞서야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날 확진된 부인 멜라니아에 대해서는 "영부인도 매우 잘 지내고 있다"면서 "우리 둘 다 잘있다. 멜라니아는 아주 훌륭하게 해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 영상은 앞서 미 언론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입원 전 백악관에서 산소호흡기를 낄 정도였다고 잇따라 보도한 직후 공개됐다.

이런 보도는 손 콘리 대통령 주치의 등 의료진이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태가 아주 좋고 24시간 동안 열이 없었으며 호흡에도 문제가 없다고 밝힌 것과 상반되는 것이기도 하다.

/연합뉴스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사·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수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이웃을 위한 따뜻한 손길 어르신 돌봄은행이 함께합니다!

"이제는 자원봉사도 저축이 된다"

어르신 돌봄은행이란?
돌봄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돌봄활동을 제공하면 이를 돌봄포인트로 적립·관리하고, 만 65세 이후에 본인·가족·제3자가 돌봄활동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돌봄봉사자 모집
● 돌봄봉사자 자격 : 만13세이상, 2인 1조 활동 권고, 4시간 교육 필수(교육시간도 포인트 혜택)
● 돌봄봉사자 혜택
- 돌봄활동 1시간당 1포인트 적용(적립 및 사용)
- 돌봄활동 시간 VMS 연계 적립
- 돌봄포인트 적립 시 의무기부 20%
- 적립한 포인트는 가족과 제3자에게 기부 가능
● 돌봄활동 범위
- 인지활동·정서지원, 가사·일상생활지원, 주택안전관리 등
● 돌봄봉사자 기초관리교육 : 수시 모집

돌봄대상자는?
● 어르신 돌봄은행에 회원등록한 만65세이상의 어르신 중 전문자가 돌봄활동 제공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자이거나, 만 40세 이후 본인이 적립한 돌봄포인트와 기부받은 포인트의 합계가 100포인트 이상인 어르신
● 돌봄서비스 범위 : 인지활동·정서지원, 가사·일상생활지원, 주택 안전관리 등

CCC 동구노인종합복지관 www.noin.or.kr
☎ 062-232-4953

1688-3579 (전국 50개 시군구소재)

보건복지부 SSN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땅 매 매

화순 도곡 신덕리 계획관리지역 임야 20530㎡
야산·축사허가 및 지붕 위 태양광 설치 가능
선로확보가 14억원(조정가)

남구 대촌 지석동 자연녹지 담1003.5㎡
(대촌산업단지4차선 도로점, 아파트 2천세대 예정) 29억원
남구 대촌 양과동 담1857㎡ 2억8천5백만원
남구 대촌 양촌동 담3875㎡ 3억5천5백만원
광산 수원동 상업용 4층 건물 대지 480㎡, 연 998㎡, 엘리베이터 아파트 밀집지역 보 2억9천만원, 월 1640만원, 용 12억원 매 40억원
나주 남평 교촌리 생산녹지 2585㎡ 3억5천5백만원

대한공인중개사사무소(전주) 010-6683-3274
광주광역시 남구 대촌 포충로 606-2

산행안내
10월6일(화) ▲광주 가고파트레킹 10월6일(화) 군산 구불길·비단강길 트레킹, 진월동식자재마트 앞 07:20, 월드클럽분문 시내버스승강장 07:30, 한국병원앞 07:40, 교원공제회 앞 07:50, 문예회관후문 시내버스승강장 08:00 * 다음카페 광주 가고파트레킹 ☎ 010 6294 2678, 010 3620 2284

10월17일(토) ▲광주금당산악회 10월17일(토) 충북 포암산·만수봉·용암산, 봉선동 롯데마트 앞 06:10, 진월동식자재마트 앞 06:20, 영주체육관 06:30, 한국병원 앞 06:40, 문예회관정문 앞 06:50, 비엔날레주차장 입구 07:00 * 다음카페 광주금당산악회 ☎ 010 6294 2678, 010 3620 2284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8년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케냐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

• 지국안내 •

북구	·동 광 266-1920	·문 흥 266-1960	·북광주 525-3761
	·신 안 222-8171	·양 산 571-7658	·오 지 266-7601
	·용 북 433-1503	·우 산 433-1503	
동구	·남 광 675-5530	·동 명 222-9054	·동 부 225-6001
	·중 앙 222-9054	·충 장 222-8171	
남구	·남 부 675-5530	·백 운 651-1833	·봉 선 675-5530
	·송 아 675-6605	·진 월 671-7276	
서구	·광 천 382-5788	·상 무 372-2352	·서광주 369-1625
	·운 천 376-7153	·치 평 376-6511	·풍 암 603-0311
	·화 정 369-1625		
광산구	·운 남 952-1687	·월 곡 959-1920	·침 단 973-2900
	·하 남 955-0451	·광 산 944-0444	